

폭염에 더욱 빛난 '친절한 전주'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친절행정으로 소소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과 관광객이 따가운 햇볕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쉼터를 도시 곳곳에 설치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친절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민들의 민원을 끝까지 동행하며 해결해주는 '끝까지 민원 동행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늘막 쉼터는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8월 초부터 △전주역 주변 2곳과 △한옥마을 초입인 오목대 육교 △전주사대부고 네거리 △금암광장 네거리 △금암광장 오거리 △진북동 한국은행 사거리 △전주교육지원청 등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에 설치됐다.

해당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한여름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자칫 장시간 폭염에 노출돼 발생할

시, 도심 곳곳에 그늘막 쉼터 설치 '호평' '끝까지 동행 민원실' 신속한 민원 해결

수 있는 일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그늘이 없는 야외장소에 그늘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그늘막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동선을 방해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시는 그늘막 쉼터를 이달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을 감동시키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동행 근무자가 각종 민원해결을 위해 시청과 구청, 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들과 동행하며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처리해주는

'끝까지 동행 민원실'도 운영하고 있다.

동행 민원실은 민원업무에 대해 방만한 시민들이 동행 근무자와의 기본적인 상담을 통해 민원을 직접 해결하거나, 동행 근무자의 도움으로 민원 담당공무원과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민원해결을 위해 각종 문서대장 및 전산 프로그램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행 근무자의 안내로 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는 등 민원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나가고 있다.

시는 특히 기존의 행정중심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자제하고, 비록 사소한 사업일지라도 시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알려 동의와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 4월 객사 맞은편 승강장 주변 나무에는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을 위해 벌목이 예정된 나무에 '나무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라는 작은 현수막 편지를 내걸어 시민들에게 벌목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을 알렸다. 또, 어은·도토리골 일원의 우기철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은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덕진구 진북동 쌍대리교 인근 공사 현장에는 '어은·도토리골 주민들은 비만 오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공사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선 6기 전주시의 핵심 가치는 사람이다. 기존의 행정 중심의 시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친절·공감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정신 전문강사 양성한다

교육 수료 후 시민교육 담당

전주시가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전주의 역사성과 고유성, 미래성을 상징하는 대표정신인 전주정신 확산을 본격화한다.

전주시는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와 함께 추진하는 '은나라 인문강좌 과정'에 전주정신을 알리는 '전주정신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추가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정신은 모두가 조화롭게 어울리며(대동) 삶의 여유와 멋을 잃지 않고(풍류), 사람의 도리와 의로움을 추구하며(올곧음), 창의적 미래를 열어가는 것(창신, 創新)을 토대로 한 '한국의 꽃'으로, 지난 6월 전주시민의 날에 선포됐다.

사전 집수를 통해 수강을 희망한 43명의 교육생들은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총 7일간 전주정신정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지역의 전문가 7명으로부터 전주정신에 배우게 된다.

강연주제는 △전주 역사문화의 특질 △풍류문화와 풍류정신 △올곧음과 절의 정신 △배려와 포용의 대동정신 △전주 토대로 한 찬신 △한국의 꽃 △전주 등이다.

시는 이번 전주정신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전주정신을 시민들에게 알릴 강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 참가자 중 총 7차례의 교육과정을 빠짐없이 수강하고 마지막 강의 시연평가에서 기준을 통과한 수료자 30명은 오는 9월부터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전주정신을 교육하는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 삼천도서관, 내달 6일 부모교육 특강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영유아 자녀를 둔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특강이 열린다.

전주시립 삼천도서관은 다음달 6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70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특강을 진행한다

29일 밝혔다. '생애 첫도서관 이야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번 부모교육에는 '엄마의 말공부'의 작가 이임숙 씨가 강사로 초청돼 '기적 같은 변화

를 불러오는 작은 말의 힘, 엄마의 말'을 주제로 진행한다.

특히 이임숙 작가는 이번 특강을 통해 지난 15년간 아이와 부모를 직접 상담해 얻은 대화의 기법과 아이의 행동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엄마의 전문용어 등 자녀와의 소통 문제로 고민해온 부모들에게 시원한 해답을 주는 육아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월세대출 지원 확대

주택도시기금 운영 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수급자 대상

전주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이달부터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이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후 지원 대상이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수급자 등 자활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에 한정됐지만,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취업준비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원까지 최대 2년간 7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수급자, 기초학자금 대출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취업은행에 상담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가 안정되고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에 대한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리는 우대형 1.5%, 일반형 2.5%의 저리로 지원되며, 기용기간도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4년 더 연장됐다. 또, 취급은행도 기존 우리은행 1곳에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을 포함한 6곳으로 확대돼 이용이 편리해졌다.

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저소득층에게는 주거급여지원을, 높은 월세 부담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층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시책과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월세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공부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순수월세, 준전세, 준월세 포함). /김영재 기자

절에서 불상 흡친 60대 입건

남원경찰서는 29일 절에서 청동불상을 흡친 혐의(절도)로 허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8일 오전 남원시 주전면의 한 절에서 청동으로 제작된 미륵반가사유상(높이 28cm)을 흡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신도를 가졌던 절에 들어간 허씨는 승려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걸옷 속에 불상을 감춰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U-20월드컵 성공 개최 기원 친선축구

전주시의회가 지난 28일 전주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개막을 9개월여 앞둔 2017 FIFA U-20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기원과 축구 붐 조성을 위한 친선 축구 경기를 가졌다.

이번 친선 경기는 전주시의회 의원과 전주시 덕진구청 공무원 60여 명이 참여해 축구경기와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개막식을 비롯한 U-20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이날 축구경기에 참여한 강동화 전주시의회 축구동호회장은 "개막전을 통해 전주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옥시 본사 책임자들입니다" 가슴기살군체 피해자와 가족모임 등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영국 본사 책임자의 청문회 불참을 규탄하고 있다.

전주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전문가 토론회

전주지역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는 29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오광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 전북지역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활성화

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시와 전주대학교가 후원하고 새누리당 정운천(전주) 국회의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이상훈 한국 조달연구원 연구실장은 "부처별, 지역별 공공구매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고, 지역기반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민간자원과 연계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또한 김관우 (유)맑은누리 대표와 박용범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구매시장 진입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유남희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이사장이 좌장으로, 김형조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 조용환 한국산업융합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